



프랑스

정부 '2022
BIM 계획'
2024년까지
연장

‘2022 BIM 계획(Plan BIM 2022)’은 2015년부터 실시된 초기 ‘건설 디지털 전환계획(Plan Transition Numérique dans le Bâtiment, PTNB)’의 새로운 버전이다. 건설 디지털 전환계획은 2014년 12월 10일 해당 분야를 현대화하고 직업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건설의 질을 높이고 신규 건설 및 재생의 비용을 줄이고자 고안되었다. 2022 BIM 계획은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 분야의 주체들을 움직이고 이들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자 실시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축을 기반으로 한다. 먼저, 사용자 각자가 기대하는 바와 책임에 대한 명확하고 균형 잡힌 정의를 통해 모든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BIM 발주를 일반화한다. 이를 위해 BIM 발주와 계약을 안정화하고 보안을 보장해 준다. 또한 프로젝트 관리 및 자체 모니터링 절차를 단순화한다. 둘째,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프랑스 내 모든 지역에서 BI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근거리 접근성이 높은 교육수단 개발과 BIM 사용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다른 주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주체가 현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역동적인 에코시스템을 형성한다. 또한, 주체들이 공공 플랫폼 KROQI(<https://kroqi.fr>)에서 구체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한다(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2021).

지역결속부(Ministè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는 BIM의 사용과 일반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헌장을 발표하였다. 먼저, ‘2022 BIM 목표(Objectif BIM 2022)’ 헌장을 2017년 11월 건설박람회에서 발표하였다. 이 헌장에는 76명의 건설 분야 대표가 서명하였고, 2018년 3월에 프랑스에서 규모가 큰 5개 건설사가 상호 헌장에 서명하였다. 그 기업들은 프랑파리 익스프레스 수도권 고속철도를 공사 중인 소시에테뒤그랑파리(la Société du Grand Paris), 프랑스철도공사(SNCF Gares & Connexions), 파리지하철공사(le groupe RATP), 파리사클레 공공정비공사(l'Établissement public d'aménagement public Paris-Saclay), 그랑파리 정비공사(Grand Paris Aménagement)이다. 또한 2017년 12월 지역결속부가 발표한 ‘건물 인터넷, 인간적이고 연대적인 건물 헌장(La Charte ‘Bâtiments connectés, bâtiments solidaires et humains’)’에는 134개의 업체가 서명하였다.

이 헌장에서는 원거리 조절, 각각의 주민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갖추어 환경에 좀 더 적합하며 높은 성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주민 간의 상호 작용, 아파트 주민 공간의 원활한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 효율성, 안전, 관리의 수월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과 건물 환경을 위한 기준, 인터넷, 개인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2021).



이수진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낭트대학 강사
(violetcelle@gmail.com)



2022 BIM 계획 위원회 회장 이브 라푸크리에르(Yves Laffoucrière)는 이 BIM 활성화 계획이 2022~2024년으로 연장되었으며, 6백만 유로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 버전보다 더 많은 예산이다. 신규 버전에서는 8개의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진전을 보일 것이다. 8가지 주제는 BIM 발주의 일반화, 속성과 규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용어사전 제작, BIM 사용의 변화를 매년 측정하기 위한 지도를 갖춘 디지털 관측소 설립, 초기 교육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 지역에서 지역 주체들과 만남 투어 조직, 혁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실험 공모, 디지털과 석면, 의사소통이다. 라푸크리에르 회장은 가시성을 중시하고 산업 중심에 있는 영국의 모델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교육 중심으로 전 국토에 BIM을 보급하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언급했다(News Tank Cities 2022).

프랑스의 교육 중심 및 국토 전반에 사용을 보급하고자 하는 방식의 정책은 느리지만 신기술을 국토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당 종사자들을 모으고 교육하여 점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 나가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2021. Bâtiment et numérique. 5월 17일. <https://www.ecologie.gouv.fr/batiment-et-numerique> (2023년 12월 17일 검색).
- News Tank Cities. 2022. « 8 thèmes vont guider l'action du Plan BIM 2022-2024 avec un budget de 6 M€ » (Yves Laffoucrière). Paris - Interview n° 242216. 2월 23일. <https://cities.newstank.fr/article/view/242216/8-themes-vont-guider-action-plan-bim-2022-2024-budget-6-yves-laffoucriere.html> (2023년 12월 17일 검색).